

강남, 강북 지역간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행동의 비교

이 규 영*

적십자간호대학

The comparison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elementary students of seoul on the stress levels and coping behaviors

Gyu Young Le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behavior of elementary students in southern and northern area of Han river.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comparative survey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403 5th-and 6th-grad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χ^2 -test,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1.5 statistical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stress and stress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northern and southern elementary students of seoul, Stress levels tended to increase more significantly with less satisfied life, more study time, in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in northern students, and with more individual factors. With regard to stress coping behaviors, students with higher life-satisfaction tended to use active coping, and female students used more positive and mystic coping than negative coping.

Conclusion : Students living in northern area, and more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showed a high level of stress, and students with a higher stress level were better able to cope with stress. Thus, it could be concluded that programs to lower stress levels are needed more than stress intervention programs.

key words : student, stress, coping behavior.

(2007년 10월 12일 접수, 12월 22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Gyu Young Le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98 Saemoonan-Gil, Jongno-Gu, Seoul 110-102, Korea
Tel: 82-2-3700-3674 Fax: 82-2-3700-3400 E-mail: queyoung@redcross.ac.kr

1. 서 론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신병리학적 입장이나 혹은 성인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이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은 외면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이나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기로서 6, 7세부터 11, 12세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의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구체적 조작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규칙을 학습한다. 이 시기에 가족이외의 다른 성인이나 또래친구, 메스킴, 인터넷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나 이웃에 국한되었던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친구관계나 학습에 대한 어른의 기대감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황혜정(2006)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요인이 공부압력, 부정적인 자존감, 부모폭력이 38.1% 설명력이 있다고 하였고, 김지숙과 류상희(2003)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유의한 요인들로 성적이 '상'인 그룹과 '하'인 그룹이 '중'인 그룹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가정생활수준은 '하'인 그룹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홍영란(2000)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요인, 대처방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문제대처를 잘 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복례(2000)는 초등학생들의 두통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에서 두통이 유의하게 많은 것을 보고하였다. 박찬자(2002)는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 Sharrer와 Ryan-Wenger(1995)는 2년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질적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의 강도는 감소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Tanaka 등(2000)은 학생들의 정신신체증상(psychosomatic symptom, PC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연령, 학교성적, 인간관계, 부모관계가 유의한 요인들로 보고하였다. Dombrowski(1999)는 초등학생을 위해 스트레스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Weist 등(2000)은 학교의 정신건강사업의 요구도 분석을 학교수준별로 지역별로 사정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역별로 다른 접근방법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안에 대해 지역간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 중 김지숙과 류상희(2003)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으나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농촌 학생들이 유의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경(2004)의 연구에서는 시내와 읍면지역 학생간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두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Weist 등(2000)의 연구에서는 지역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도시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중소도시나 농촌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지역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를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므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을 비교한 내용 중 학생과 관련된 보고에 따르면 강남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6.26명인데 비해 강북지역은 37.01명이며, 인구 만 명 당 청소년 수련시설이 강남지역은 21.51개인데 비해, 강북지역은 8.39개였다. 또한 인구 만 명당 시설학원수도 강남지역은 165.4인데 비해 강북지역은 111.33개로 으로 강남지역의 교육여건이 강북지역보다 우월함을 보여 주었다(이주희, 2002). 조아미(2004)는 강남구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1073명에게 질문한 결과 96.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74.2%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렇게 서울시 지역간 특히 강남과 강북지역의 차이가 여러 부문에서 크며, 또한 강남 청소년들의 많은 스트레스 수준이 보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식에 대한 강남·강북 지역 비교연구는 극히 소수이고, 서울시 중 특히 강남과 강북 지역의 격차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지역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을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눈 것을 근거로 하여(김우림, 2006), 사춘기로 이행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강남과 강북 지역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 지역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강남과 강북지역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 2) 강남과 강북 지역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비교 분석한다.
- 3)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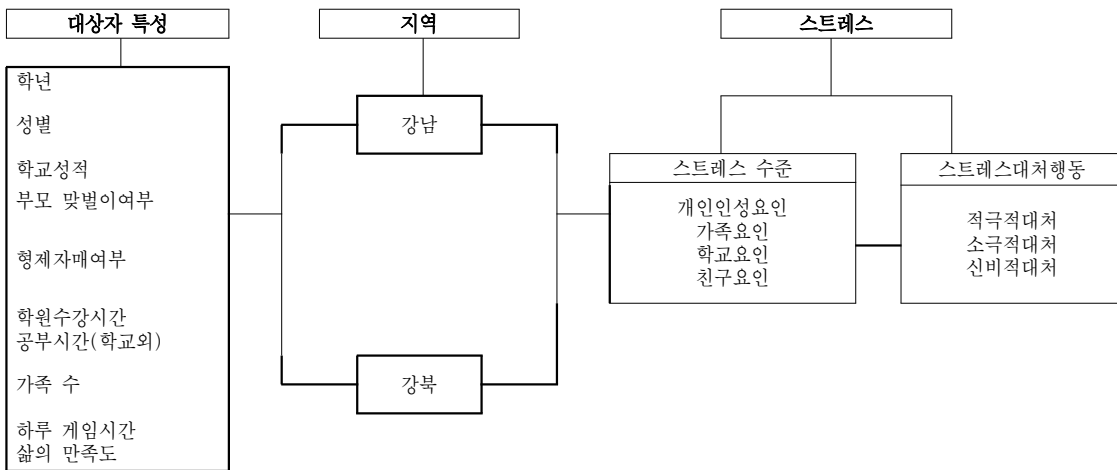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강남과 강북지역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의 틀은 [그림 1] 과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비교적 강남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강남지역 일 개 초등학교 5, 6학년의 3개 반 학생 250명과 강북지역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일 개 초등학교 5, 6학년의 3개 반 250명을 임의표출하여 총 5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응답내용이 누락된 97명(강남 37명, 강북 60명) 학생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403명(82.6%)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도구

연구도구로는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스트레스 수준 55문항, 스트레스대처행동 31문항으로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와 학생 질적자료, 간호학 교수 2인, 초등학교 교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로는 성별, 학년, 성적, 부모 맞벌이 유무, 출생순위, 형제자



[그림 1] 연구의 틀

매여부, 생활만족정도 등이며, 학생의 질적자료는 2006년 5월1일-5월3일 사이 경기도 G시 초등학교 5학년 35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주관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엄마가 학원에 가라고 할 때', '공부하라고 할 때', '컴퓨터게임을 못하게 할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원수강여부, 학교 외 공부시간, 컴퓨터게임시간 등의 3가지 변수를 포함시켰다. 스트레스 수준 측정은 이경(2004)과 김명희(2005)가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인성 영역 8문항, 가정요인 18문항, 학교요인 12문항, 친구요인 16문항 등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트레스 정도 응답 방식은 5단계 평정 척도로 각 문항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전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1점 "약간 느낀다" -2점 "보통정도로 느낀다" -3점 "심하게 느낀다" -4점 "아주 심하다" -5점으로 평정하여 스트레스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5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명희(2005)가 사용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도구는 Folkman 과 Lazarus(1984)가 개발한 대처행동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을 최민자(1989)가 변안한 것을 기초로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신비적 대처의 세 영역으로 측정되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85로 두 도구의 신뢰도인 항목간의 일치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 학교의 학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주간 이루어졌으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자가 보고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본 설문지의 작성시간은 10-15분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설문자료는 윈도우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1.5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지역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변수들의 분석은 χ^2 -test,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강남 강북 지역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비교 분석하였다(표 1). 두 지역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난 변수들을 보면, 성적인지정도, 부모맞벌이, 학원수강여부, 평균 가족 수, 학교 외 하루평균공부시간, 하루 평균 게임시간이었다. 성적인지 정도에서는 강남학생들이 성적을 '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36.2%였는데 비해 강북 학생들은 22.1%로 유의하게 낮았다($\chi^2=19.98$, $p=.000$). 강남지역의 경우 34.3%가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강북지역의 경우는 66.8%가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강북지역에서 부모의 맞벌이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42.61$, $p=.000$). 학원수강여부에서는 강남 학생들은 96.2%, 강북학생들은 91.6%로 두 지역 모두 학원수강이 높았으나, 강남학생들의 수강율이 강북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hi^2=3.9$, $p=.048$). 평균 가족 수는 강북이 4.39로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t=2.50$, $p=.013$). 학교 외 하루 평균공부시간은 강남이 4.22시간으로 강북의 2.06시간 보다 월등히 많았다($t=5.18$, $p=.000$). 반면 하루평균 게임시간은 강남학생들이 .91시간에 비해, 강북학생들은 1.63시간으로 강북학생들이 월등히 높았다($t=20.52$, $p=.000$). 그 외에 형제자매여부와 생활만족도는 강남과 강북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남 강북 지역간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연구대상자의 강남과 강북 지역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해 보면(표 2), 강남학생들의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2.99인데 반해, 강북학생들은 3.08로 강북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표 1〉 연구대상자의 강남, 강북 지역별 일반적 특성 비교

(n=403)

변수	구분	지역		명(%)	χ ² (p)
		강남 명(%)	강북 명(%)		
학년	5학년	103(48.4)	94(49.5)	197(48.9)	.050(.823)
	6학년	110(51.6)	96(50.5)	206(51.1)	
성별	남	121(56.8)	105(55.3)	226(56.1)	.097(.755)
	여	92(43.2)	85(44.7)	177(43.9)	
성적 인지 정도	상	77(36.2)	42(22.1)	119(29.5)	19.98(.000)
	중	130(61.0)	124(65.3)	254(63.0)	
	하	6(2.8)	24(12.6)	30(7.4)	
부모 맞벌이	예	73(34.3)	127(66.8)	200(49.6)	42.61(.000)
	아니오	140(65.7)	63(33.2)	203(50.4)	
형제자매 여부	있다	200(93.9)	170(89.5)	370(91.8)	2.61(.076)
	없다	13(6.1)	20(10.5)	33(8.2)	
생활 만족도	만족	157(73.7)	140(73.7)	297(73.7)	.00(.996)
	불만족	56(26.3)	50(26.3)	106(26.3)	
학원여부	안다닌다	8(3.8)	16(8.4)	24(6.0)	3.90(.048)
	다닌다	205(96.2)	174(91.6)	403(94.0)	
평균가족 수		4.21±.58	4.39±.87	403	25.07(.013)
하루평균공부시간 (학교 외)		4.22±.24	2.06±.15	403	5.187(.000)
하루평균 게임시간		.91±1.09	1.63±.14	403	20.52(.000)

〈표 2〉 강남/강북 지역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n=403)

변수	구분	지역		t	p
		강남 (mean±SD)	강북 (mean±SD)		
스트레스 수준	전체	2.99±.61	3.08±.63	-1.426	.155
	개인인성요인	2.66±.70	2.87±.77	-2.963	.003
	가정요인	3.25±.62	3.24±.67	.012	.851
	학교요인	3.05±.75	3.04±.74	.018	.810
	친구요인	3.06±.75	3.19±.70	-.127	.883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대처	2.67±.70	2.69±.62	-.407	.686
	소극적대처	1.98±.76	2.17±.71	-2.62	.009
	신비적대처	3.10±1.11	3.17±1.03	-.652	.514

〈표 3〉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하는 연구대상자 특성 분포

단위 : 회귀계수(p값)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소극적	신비적
성별 (1=남자, 2=여자)	.156(.012)	.150(.024)		.397(.000)
학년 (1=5학년, 2=6학년)	.159(.011)			
생활만족도 (1=만족, 2=불만족)	.165(.018)	-.275(.000)		
지역 (1=강남, 2=강북)			.196(.008)	
R ²	.045	.045	.017	.033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426, p=.155$). 스트레스 수준을 네 가지 영역 즉, 개인인성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은 두 지역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인성 영역의 스트레스 수준에서만 강북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강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963, p=.003$)

지역별에 따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2>, 적극적 대처와 신비적 대처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극적 대처는 강북학생들의 점수가 2.17로 강남학생들의 1.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628, p=.009$).

3.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예측하는 다변량 회귀분석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각각 예측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3>,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특성들은 성별, 학년, 생활만족도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b=.156, p=.012$), 학년이 올라갈수록($b=.159, p=.011$), 생활이 불만족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65, p=.018$).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있어서 성별에서는 여자가 적극적 대처($b=.15, p=.024$)와 신비적 대처($b=.397, p=.00$)를 남자보다 모두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은 적극적 대처($b=-.275, p=.00$)를 많이 사용하였고, 강북학생들이 강남학생들보다 소극적 대처($b=.196, p=.008$)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강남과 강북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에서 보면, 강남학생들이 성적을 '상'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36.2%로 강북학생의 22.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강남학생들의 학원수강비율도 강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하루공부시간도 강북학생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에 강북학생들은 강남학생들보다 컴퓨터게임에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강남학생들이 강북학생들보다는 학원도 더 많이 수강하고 있으며,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강북학생들의 부모맞벌이 비율이 강남학생들 보다 거의 두 배나 유의하게 높았으며, 형제자매 여부는 강남지역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족 수는 강북이 4.39명, 강남이 4.21명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강남보다는 강북지역의 학생들이 조부모 동거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맞벌이 부모가 많은 것으로 보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는 격차가 아닌가 사료된다.

강남과 강북지역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개인인성 영역에서는 강북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냈다. 박찬자(2002)의 연구에서도 강북지역 학생들의 스트레스 점수 중 개인적인 요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개인인성 영역의 스트레스 내용은 외모, 건강, 성격, 진로 및 본인의 생각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용모(키, 몸무게, 외모)가 맘에 들지 않을 때',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장래에 무엇이 될까 걱정할 때'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컴퓨터(인터넷)게임에서 졌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를 너무 하실 때',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해 친구가 없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로 구성되어있다. 강북 학생들의 개인인성영역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이유는 강남학생보다 강북학생들의 부모 맞벌이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사춘기시기로 예민해져있고 신체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이 시기의 학생들은 부모가 집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의논할 상대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 컴퓨터게임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스트레스 수준 점수는 강남과 강북지역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 중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는 박찬자(2002), 김지숙과 류상희(2003), 이경(2004)의 연구이다. 이 세 연구 모두 지역별에 따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자(2002)는 강남과 강북 지역간 초등학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비교하였고, 김지숙과 류상희(2003)연구에서는 중소도시 학생과 농촌 학생을 비교하였고, 이경(2004)은 지방도시와 농촌

학생을 비교하였다. 박찬자(2002)의 연구는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차이는 없었으나 개인적 요인에서 강북지역 학생들이 스트레스 점수가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연구에서는 지역간의 비교를 하였지만 지역비교가 중소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방도시와 농촌으로 이루어져 지역간의 실질적인 특성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두 지역간의 학생 스트레스 수준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Weist 등(2000)이 지역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도시(urban), 소도시(suburban), 농촌(rural)으로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도시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농촌이나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 수행된 지역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에서 수행된 일 연구에서는 지역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역간에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미국의 지역간 차이가 한국 내 지역간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아울러 한국 내 지역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인 성별, 학년,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다변량 회귀모형을 stepwise로 구축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일수록($p=.012$), 6학년일수록($p=.011$), 생활이 불만족 할수록($p=.018$)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모델 전체의 유의성은 $p=.01$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설명력은 4.5%로 낮았다. 이는 황혜정(2006)의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한 회귀분석에서의 설명력이 초등학교에서는 38.1%, 중학교에서는 41.8%를 나타낸 것보다는 매우 낮은 설명력이다. 황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단일한 학교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석한 동일한 지역의 대상자였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한계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데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 외에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외적 변수들의 존재로 인해 낮은 설명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련변수들을 연구한 타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변수들로는 성별이었다. 황혜정(2006)과 이경(2004), 조원호(200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 연구 중 Sharrer와 Ryan-Wenger(1995)의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 강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Sharrer와 Ryan-Wenger (1995)의 연구대상자는 남녀 총 84명의 대상이었고, 농촌지역 학생들이었다. 황혜정(2006)과 이경(2004), 박찬자(2002)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500여명 이상 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비교적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찬자(2002)에서 초등학교 4학년보다 6학년학생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황혜정(2006)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초등학교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과 일치하여, 학년이 높으면 스트레스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생활에 불만족을 갖고 있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명희(2005)의 연구에서 가정환경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이경(2004)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성적이 낮거나, 가정환경의 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생활에 불만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히 스트레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 결과를 보면, 강북학생들이 강남학생들보다 소극적 대처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찬자(2002)의 연구에서 강남지역 학생들이 능동적인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다소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가 적극적 대처와 신비적 대처가 남자보다 모두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은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고, 강북학생들이 강남학생들보다 소극적 대처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강북학생들을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대처를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스트레스대처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대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남의 D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13명, 강북의 M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90명, 총 403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특성비교,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행동비교,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강남 강북 지역간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적인지정도, 부모맞벌이, 학원수강여부, 평균 가족 수, 학교 외 하루평균 공부시간, 하루평균 게임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스트레스 전체 수준에서는 강남과 강북지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지만, 개인인성 영역의 스트레스 수준에서만 강북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강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특성들은 성별, 학년, 생활만족도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활이 불만족할수록 스트레

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있어서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적극적 대처와 신비적 대처가 남학생보다 모두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은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고, 강북학생들이 강남학생들보다 소극적 대처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 입각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강남과 강북 중에서도 일 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일반화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강남과 강북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와 다양한 학년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북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개인인성요인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지역을 고려한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명희(2005). 초등학교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47. 강릉.
- 김지숙, 류상희(2003). 초등학교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1), 105-117.
- 박찬자(2002). 강남, 강북 지역간 초등학교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행동의 비교.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45. 서울.
- 이경(2004). 초등학교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45. 대구.
- 이주희(2002). 논단: 서울 강남 · 북 지역격차 해소 전략(상). 도시문제, 37(403), 93-105.
- 정복례(2000). 두통을 호소하는 초등학교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아동간호학회지 6(3), 354-361.
- 조아미(2004). 강남구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

- 8, 207-225.
- 최민자(1989).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60. 서울.
- 홍영란(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요인, 대처방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적응. 아동간호학회지, 6(3), 362-371.
- 황혜정(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 연구, 19(1), 193-216.
- 김우립(2006). 도시서울의 발달 4 zone. 서울역사박물관 교육홍보과 팸플렛. [Online]. Available: www.museum.seoul.kr
- Dombrowski, M. A. (1999). Preventing disease with stress management in elementary schools. *J of Sch Health*, 69(3), 126-127.
- Folkman S., & Lazarus R.S. (1984). *Stress, appraisal an coping*. New York. Spring Pub. Co.
- Sharrer, V. W., & Ryan-Wenger N. M.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age and gender differences of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in school-aged children. *J of Ped Health Care*, 9(3), 123-130.
- Tanaka, H., Tamai, H., Terashima, S., Takenaka, Y., & Tanaka, T. (2000).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psychosomatic symptoms in Japanese schoolchildren. *J of Ped Int*, 42(4), 354-358.
- Weist, M. D., Myers, C. P., Danforth. J., McNeil, D. W., Ollendick., T. H., & Hawkins, R. (2000). Expanded school mental health services: assessing needs related to school level and geography. *J of Comm Ment Health* 36(3), 259-273.